

알일이 영어가는 꿈과 사랑의 한마당

인천선학초, 교육공동체 행복축제

가을바람이 선선했던 9월 30일, 인천선학초등학교(교장 박학범)에서는 아침부터 들뜬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선학교육공동체 행복축제 '알일이 영어가는 꿈과 사랑의 한마당'이 열렸다.

선학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서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생들이 한 글자씩 정성 들여 소감을 써넣은 형형색색의 '소망 바람개비'였다.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랑 더 친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평화롭게 해주세요.' 등 초등학생들의 밝고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소망 바람개비가 시원한 가을바람에 힘차게 들고 있는 교정을 지나면 학교 곳곳에서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함께 예쁜 포스트 사인을 찍어 전시한 '아름다운 학교 사진 전시회'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다.

본래에 들어서면 반과 후 활동 결과를 볼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작품 전시회'도 준비해 일회성 행사 전시회 '아름다운 학교'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선학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선학초등학교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임을 알 수 있었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1부 '재능마당'과 2부 '체험마당'으로 구성된 '선학 교육공동체 행복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먼저 1부 순서인 재능마당은 모듬북 동아리 학생들의 신명 나는 우리 가락 무드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년 수준에 맞는 춤, 노래, 악기 연주, 수화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영역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무대였다. 선학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여성합창단 '조이풀 콰이어'와 관현악단 '소리모아 하나로' 연주단의 찬조 출연으로 더욱 빛나는 무대이기도 했다.

관현악단 '소리모아 하나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파견된 '한국음악협회인천지회관악단' 소속 지휘자 이재우 5명의 관현악 강사(지휘이종남)의 지도로 지난 6월 24일 개강식부터 11월 25일 폐강식까지 매주 1회씩 약 5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학생들의 성장세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2부 체험마당은 만화경 만들기, 시온물감으로 그리기, 아광 자의선 목걸이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친환경 화초 키우기, 휴먼 예방 스토레스 체험, 공기 태포 체험, 주부의 후에 할쓰기 등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21개의 체험 부스의 캠프와 딱딱 지 등을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부도 함께 운영돼 학생들이 축제에 흥분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실마리는 교육의 장이었다.



말다름 학교 글쓰기 대회', '아름다운 학교 사진전', '소망 바람개비 만들기', '방과 후 학교 학습물 전시회', '여성 조이풀 콰이어'의 참여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돼 교육적으로도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아침부터 아이들의 끼와 재능이 담긴 공연도 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모두가 신나는 하루였다. 앞으로 선학초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담배연기는 이제 그만!

인천남중 'Fun Fun한 휴먼예방 캠프'

인천남중학교(교장 구형회) 남중관에서는 지난 9월 24일 'Fun Fun한 휴먼예방 캠프'를 개최했다. 학생들 간부 학생들과 유급생 학생들로 구성된 50여 명의 학생은 이날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고취하고 금연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 번 피땀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다.

금연골든벨을 통해 타르나 니코틴 등의 유해물질이 왜 들어 해로운지, 흡연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2년 영향을 주는 간접흡연, 3차 흡연에 대해서도 학습함으로써 흡연의 문제점을 생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장기자랑, 음식콘테스트, 쇼티스츠 만들기, 폐활량 증가 조별 대항 게임

등에서 참가 학생들은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함으로써 질서인식을 기르고 상부상조하며 서로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됐다. 캠프에 참여한 3학년 박모 학생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흡연의 경각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안전부 부장 문철중 교사는 "책으로 전달되지 않는 휴먼예방교육을 체험을 통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접근성 있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겨낸 쾌거

인천여중, 인천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서 우승 플라이디스크 엘리트 종목에서 2연패



인천여자중학교(교장 김영주)는 9월 24일 개최된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이디스크 엘리트 종목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에 열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동부교육지원청 대표로 선발된 인천여자중학교는 시 대회까지 대체하며 작년 이어 2연패의 영광을 누렸다.

작년 대회의 우승으로 또다시 우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4강전을 무난히 이겨 사기가 오른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삼곡여중에 첫 득점을 내주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돌풍을 몰고 전진력과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자신감, 파이팅으로 역전, 우승의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모두가 감동을 선사했다.

인천여자중학교 플라이디스크 엘리트부 학생들은 대회 전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 8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하이패스(신 급식) 식권을 지참해 신 급식 후

와 35분 동안, 반과 후에도 본인의 학업에 피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내 열심히 연습하는 노력의 결실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본연 의미를 심본 활용해서 의미가 더욱 남았다.

조기선 지도교사는 "열심히 노력해 얻은 성과라 기쁘고, 힘든 훈련과정을 훌륭하게 소화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나에게 이런 행복감이란 좋은 선물을 선사해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늦더위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경기장에 오셔서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응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더욱 힘을 내어 경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승패를 떠나 경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어서 더 보람이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현재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 결선을 끝내자마자 새겨진 전국대회 재패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에 훈련에 매진하는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용성 기자 as@



"사랑으로 감싸안아주세요"

인천가좌여중 '허그데이, 바른언어 실천을 위한 희망 캠페인' 개최

인천가좌여자중학교(교장 이종래)는 9월 28일 '행복한 등교 맞이, 허그데이 바른 언어 실천을 위한 희망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따뜻한 포옹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교류하고 나아가 행복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한, 바른 언어 실천을 위한 희망 캠페인으로 평소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배려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바른말 사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오전 등교 시간에 모든 교직원들은 정돈되어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학생들을 일일이 따뜻한 포옹 또는 하이파이브로 맞이하며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간식도 제공해 후식 아침을 거르고 등교한 학생들의 내면까지 사랑으로 채워줬다.

행사를 기획한 이복희 교사는 "밝은 분위기 속에 정성껏 어른들의 차려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며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불우한 가정이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이렇게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교실에서 그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학년 김모 학생은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과 쉽게 포옹하지 못하고 부끄러웠지만, 포옹을 하자 선생님의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인용성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주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거부맛
3. 순하게 안매운맛

유식은 천덕꾸러미
저희는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가족모임 단체모임 회사회식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왕로 171, 1층 (옥련동) 축현초교 청문앞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척식 및 대형주치장반비

낙지요리전문점

1,000원부터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모듬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판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천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

인천시교육청,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연수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9월 30일부터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산하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16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담당자와 복무관리 규정 및 사회복무포럼 사용법 연수와 기존 근무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왕구 인천병무지청 북부지대 교육에 의해 2016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무포럼시스템 사용방법, 고용 시간별 문제해결 요령과 실 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회복무관리포럼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추진을 통해 공공기록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기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된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에서 기록관리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중점평가항목, 사·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전국의 4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록관리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록관 운영과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개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중 기록물 평가 및 평가절차 준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등 8개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양부석 학교운영지원과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기록관리 업무추진을 통해 공공기록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기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